

촛불과 태극기



촛불은 태극기 밝혀주고 태극기는 촛불 지켜주자

대한민국은 지식기반사회 여건 갖춘 유일한 국가 '正義'에 대한 攻防 멈추고 미래 대비해야

알통 로고에 숨겨진 비밀(?)



- 전체적인 형상은 부리부리한 눈과 뿔을 가진 '치우천황'을 모티브로 하고 있음
- 한글(알통)과 로마자(alotong)로 동시에 읽힘
- 우측 상부는 지식의 힘을 상징, 알통을 자랑하는 팔뚝을 형상화
- 우측 2개의 이어진 원은 무한 자원인 인터넷 지식의 무한성을 의미하는 기호 ∞
- 빨강은 세계를 향한 알통의 뜨거운 열정
-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은 사고의 유연성 및 기업의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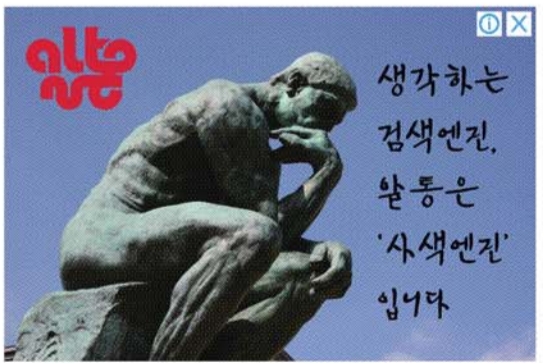
※ 이 밖에도 숨은 비밀은 몇 개 더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구글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검색해 보면 온통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만 결과로 보여줍니다. 온 세상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양반만 '정의'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검색엔진이라기보다 '확증편향엔진'일 뿐이고 심각한 문제와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터넷은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접하고 자기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검색시장의 특성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독과점에 의한 횡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또한 그런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보여 주므로 내가 선호하는 것들만 보여줍니다. 열띤 좋은 것만 보여주기에 좋은 검색결과라고 오해 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에 상업적인 의도가 숨어들었거나, 기술적인 알고리즘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면 개선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은 인류 전체가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공적인 공간이므로 어떤 한 기업에 의해 인터넷 공간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구글의 검색엔진은 인간의 뇌와도 닮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웹페이지들이 링크되는 것을 추적하여 분석한 다음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뇌의 뉴런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설

계하면서 미지의 영역이었던 뇌의 메카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확증편향 정도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 구글은 훌륭하지만 그 한계로 인해 새로운 검색엔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이유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무엇 인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찾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란 定義할 수 없는 것이 定義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미국에서는 10만 부가 채 팔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문도서로서는 드물게 13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고 옳음에 대한 갈구가 절실하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없지만 고맙게도 정의를 규정하고 나면 고민은 사라집니다. 오직 주장만 하면 됩니다. 목소리가 크고 다수의 시끄러움이 이긴 정의가 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정의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다른 정의 앞에서는 불의가 되고 맙니다. 실체가 없는 당위성일 뿐입니다. 실제로 샌델도 정의를 주장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정의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철학자입니다. 양심은 인간이 어떤 규범을 만들기 전에도 존재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양심도 없냐?'라고 말할 때는 양심의 존재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는 것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잠든 체하는 양심에게 하는 말입니다.

양심은 우리를 기본 좋게 해주는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양심에 귀를 기울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개의 정의가 지루하게 대립하면 모두의 양심에 울림이 오는 때가 옵니다. 양심은 판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지혜이기도 합니다. 헌법에서도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정의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의란 定義할 수 없는 것이 定義라면 정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정의감을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마치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했을 뿐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의감은 양심의 화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의감이 충만한 민족입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다가도 한번 정의감을 건드리면 여지없이 불타올라 지옥을 맛보여 주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약한 나라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판처럼 강대국 사람들에게는 '놈'을 불러 부르고 약소국 사람들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大韓民國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등은 감히 대자를 불리지 못합니다. G2라고 불리는 지구상의 두 강대국도 기껏해야 '중국'입니다. 그래도 흑시 몰라 우리는 대자가 두 개 있습니다. 클 대와 더불어 韓이란 글자도 크다는 뜻으로 大田의 옛 지명인 '한밭'인걸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도 큰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부터 군부의 나라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런 말들로 국뽕에 빠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수줍은 등소평의 '歸光養晦'를 배워야 합니다. 시간도 정하지 말고 묵묵히 가야 합니다. 有所作爲는 하더라도 主動作爲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름에 걸맞게 천하의 대국이 되는 길은 분쟁을 무릅쓰고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를 무한정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영토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국가 간의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이 오히려 박수를 받으며 영토를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가상공간이지만 현실세계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행위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과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 문화, 정치 등 전 분야에서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와 네트워크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자원입니다. 최고의 교육 수준과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맹률 0%에 수렴하는 '한글 보유국'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와 내수에 만족할 수 없는 인구를 뒷받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빨'로 내수시장에 안주할 수 없는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천하인들과 가상공간에서 교류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식기반 사회의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기반 위에 우리의 새로운 영토를 넓혀 나아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소모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것은 사회변혁의 방향성과 변화의 속도와 수용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주기가 긴 역사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결코 만날 지점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변화의 주기가 짧아진 지금은 대립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도 서로 뒤엎기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좌나 우나 하는 이념의 틀까지 섞이면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루어 오면서 세계사의 흐름과는 궤를 달리 한 경우이므로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일견 두 개념이 서로가 견고하게 일체의 타협이나 양보 없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양한 계층들이 수많은 사안들에 관계하게 되면 두 기준이 원칙에 맞춰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는 가치들은 시대적 요구로 각성된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며 대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변화는 불가피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면 진보,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면 보수가 됩니다.

진보와 보수는 결국 정치적·사회적 견해 이전의 문제이고 새로운 시대 정신이 각성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문제이며, 기회 포착과 위험 회피를 저울질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모든 제도들도 진보의 소산이었으나 어느덧 약습이 되고 타파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되듯이 시대 상황에 따라 가치의 기준은 달라 집니다. 좌파와 우파도 산업시대라는 시대 상황을 벗어나면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좌파가 진보일 이유는 없고, 또 우파가 보수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은 결국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양 날개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전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문명의 충돌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는 항상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는 생존의 문제이기에도 거대한 불평등이 일어나

면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풍요로운 물질사회 생산력의 주인공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은 노동력의 착취를 통한 부의 재생산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가장 단순하고 저급하지만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행해질 때 그것은 더욱 위력을 발휘하고 커다란 명분으로 인간들의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약탈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착취와 시장 확대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했기에 그 시스템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고 이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분석이었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학자였을 뿐이고 스스로 돈을 벌어난 적도 없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경제는 아니었으니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그 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주장한 마르크스의 이론에 동조했고 이미 비극은 예고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부자에 대한 증오에서 나왔기에 전 세계를 휩쓸면서 피바람을 불렀고 돌로 난된 우리 민족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구분하기에 맞지는 않지만 자본주의는 보수이고 사회주의는 진보처럼 보입니다. 자본주의는 모순과 한계가 명확하고 그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본주의의 결에는 항상 마르크스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보다 시장경제의 우월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근현대사를 어지럽혀 온 두 가지 거대 이념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 중심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실업자를 양산하는 시스템 앞에 노동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노동의 종말은 중산층의 몰락을 부르고 시장이 없어진 자본주의는 그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지지해줄 노동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평등한 노동자의 천국을 외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념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아마도 두 가지 낡은 이념의 틀 속에서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인류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을 예고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결국은 분배의 문제일 뿐입니다.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를 기다리는 것은 통제된 배급사회입니다. 사회주의가 결국 이기는 것일까요? 노동자들의 지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어디를 갈까요? 과학 혁명을 주도하고 극소수로 살아남을 대자본가들은 어떤 세상을 설계하고 있을까요? 둘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경제의 체제 아래에서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을 견제해야 하고 그것은 강력한 힘이 없는 불가능합니다.

심각함과 진지함

심각한 것과 진지한 것은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 저 친구 상당히 심각한데'라고 하는 것과 '어- 저 친구 상당히 진지한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지해지는 것은 좋지만 심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것은 문제가 많고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반면 진지하



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고민은 하지만 잘 해결할 것 같고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통해 성숙해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촛불이 태극기에 심각하다고 하는 것보다 진지하다고 말해주는 좋겠습니다. 태극기가 촛불에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보다 진지하다고 말해주는 좋겠습니다. 서로가 진지하다고 인정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에 위협받는 지면의 집단이나 계층이 움직일 때는 항상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쪼개진 두 사상의 극한 대립 지점으로 불안정 속 에 있습니다. 북쪽은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대안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남쪽은 온갖 사상이 이념들이 다 들어와 있는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오랜 동양사상의 바탕 위에 서구의 모든 사상과 학문, 기술을 흡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인류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기 위해 수백만의 인파가 광장에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도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함께 피 흘리며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경이롭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되어 우러스럽게 불어 오고 있지만 새로운 분가를 잉태하고 그것이 나오기 위한 산고일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정의의 함정에 빠진 한민족은 극심한 사색 혼란과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극한의 이념 대립을 통해 한민족의 의식은 깨어나고 인류에게 주어진 커다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은 있지만 이때까지 그대왔듯이 결국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 입니다. 촛불과 태극기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이념의 문제가 극명하게 부딪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해묵은 세계사적인 문제를 풀 실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광장에서 대결은 촛불이 태극기를 태울 것이거나, 태극기의 펄럭이는 바람이 촛불을 끌 것이거나 싸움이 아닙니다. 촛불이 태극기를 태워서 안 되고 태극기의 바람이 촛불을 꺼뜨려서 안 됩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게 태극기가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촛불이 태극기를 어두운 세상에서 환하게 밝혀줄 때 대한민국은 역사적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서 세계사적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촛불도 태극기도 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암울한 세상에 촛불도 태극기를 비추어 대한민국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야 합니다.



'알통'으로 앱 검색 또는 구글이나 Daum 웹 검색